

DDC 22의 보조표 분석

An Analysis on the Tables of DDC 22

정 필 모 (Pil-Mo Jeong)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명예교수)

DDC는 Melvil Dewey에 의해 개발되어 1876년 공간된 이래로 130년 이상의 세월을 거치면서 현재는 13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제적인 분류표이다. 이 글에서는 그 최신판인 제22판을 대상으로 주요보조표에 대해 특히 분류번호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그 개선점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한다.

1. DDC의 장점과 단점

DDC는 분류번호의 수순이 명백하기 때문에 카드배열과 책의 서가상의 배열을 손쉽게 한다는 점과, 십진식 분류법을 사용함으로써 무한히 전개하고 세구분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십진식 분류법은 새로운 주제를 위한 분류번호가 그와 대등한 번호사이에 삽입될 수가 없고, 또한 동일한 계층수준에 관한 주제를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이 10가지로만 제한되어 있는데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주제들은 세구분전개를 반복하게 되므로 분류번호의 자리수가 너무나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하여 최근 판에 이르러 여러 가지 보조표를 마련하여 이 보조표들을 사용해서 기본분류표에 전개된 분류번호와 조합하거나, 또는 첨가주기(Add note)에 따라 번호를 첨가하도록 본표의 해당 위치에 지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DDC는 최근 판에 있어서는 열거적(列舉的) 성격이 상당히 제한되었고 점차 분석적 합성식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DDC가 분석적 합성식이 되었다 할지라도 분류번호의 자리수가 너무나 길어진다는 단점은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분류번호는 더 길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분류번호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만 분류작업을 담당하는 사서 이외에 이용자들은 그 분류번호가 어떤 방법으로 매겨진 것인지 그 세부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

2. 문헌분류의 목적

도서관에서 문헌을 분류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이용자나 도서관 직원들에게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문헌을 서가 상에 배열하도록 하는 것이며, 또한 문헌이 이용자나 도서관직원에 의해서 서가에서 빼내서 이용된 다음에 그 문헌이 배열되었던 정확한 제자리에 다시 배열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선 다종다양한 문헌들 중에서 가능한 한 동일한 주제나 동일한 내용의 자료들을 동일한 서가 위치에 체계적으로 배열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도서관에서는 우선 일정한 체계(분류법)에 따라 문헌을 분류해서 그에 해당하는 분류번호나 기타의 기호 등을 책등(書背)에 기록해서 분류번호의 순차에 따라 서가에 배열하고, 또한 목록이나 서지에도 그와 동일한 분류번호와 그에 해당하는 서지사항을 기록해서 그 기록데이터(카드)를 각각의 순차에 따라 배열하거나 또는 컴퓨터에 입력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분류와 목록작업이 이루어지면 도서관이용자들은 우선 목록 또는 컴퓨터에서 각자 자기가 원하는 자료를 검색하게 되는데 검색하는 항목의 우선순위는 아마도 주제명이나, 서명이나 부서명, 저자명이나 편찬자명 또는 번역서의 경우는 번역자명 순이 될 것이다. 혹은 도서관 이용자가 자기가 원하는 문헌을 처음부터 분류번호로 접근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다만 이용자가 그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전공분야문헌의 소재위치를 이미 다 파악하고 있는 단골고객만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분류번호에 추가 되는 핵심적인 내용 이외에 부차적인 주제나 내용을 수용하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세분 전개하는 것을 억제하더라도 그 문헌의 서가상의 배열이나 검색과 이용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이다.

3. 분류번호의 최적의 조건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DDC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나 다만 세분전개를 하면 할수록 분류번호의 자리수가 너무 길어져서 서가상의 문헌의 배열과 검색이 불편하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분류번호의 자리수가 세 자리 수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15자리도 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지게 된다.

더구나 다만 분류번호에 의해서만 서가상의 배열위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최종적인 배열위치는 저자기호나 권차표시 또는 복분을 표시하는 기호 등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굳이 필요이상으로 분류를 세구분 전개하거나 기호의 자리수가 많은 보조표의 기호를 더 추가해서 서가

배열이나 목록의 배열을 복잡스럽게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관점을 토대로 하여 다음에는 DDC(22)의 보조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T1. 표준세구분표 (Standard Subdivisions)

표준세구분표의 앞부분에 우선순위표(table of preference)가 있다. 이것은 DDC에서는 하나의 표준세구분기호에 다른 표준세구분기호를 추가할 수가 없으므로 둘 이상의 표준세구분기호를 적용할 수 있는 문헌을 분류할 경우에 분류담당자로 하여금 어느 표준세구분기호를 선택하는가를 지시하는 지침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분류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표준세구분표의 요약표(summary)는 -01부터 -09까지는 두 자리 수로 전개 되어 있는데 세구분표에서는 -03, -04, -05만을 제외하고는 각각의 항목이 십진식 계층구조에 따라 전개 되어 있어서 보통 3자리 수 이상이고 6자리 수나 되는 것이 15개나 있다. 그러므로 기본적인 분류표의 분류번호가 3자리 수인 경우는 보조표의 번호자리수가 2배나 많아진다.

한편 표준세구분표(-0901 -0905)에는 연대구분표(Historical periods)가 있는데 그 기호의 자리수가 4자리부터 6자리까지 전개되어 있어서 이것은 기본적인 분류번호보다도 그 자리수가 더 많고, 또한 그 기호만으로는 그것이 분류번호인지 연대수를 나타내는 기호인지 식별할 수가 없다.

또한 위와 같이 표준세구분표에 연대구분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여러 분야에서 각각 별도로 연대구분표를 전개하고 있다:

- A. T2 지역구분표(Geographic areas)의 -3에서 고대세계(Ancient world)를 -4 -9 현대(Modern world)보다 앞세워서 별도로 연대기호표를 전개하고 있다.
- B. 교회사(270 Church history)에서도 별도의 시대구분표(270.1-270.8 Historical periods)를 전개하고 있다.
- C. 일반교회사(273 General church history)에서도 독자적인 시대구분을 하고 있다.
- D. 예술분야(Arts)에서도 709에서 고대부터 현대까지의 역사적 시대구분을 별도로 전개하고 있다.
- E. 건축학(Architecture)에서도 722, 723, 724에서 각각 시대구분을 별도로 전개하고 있다.
- F. 800 문학(Literature)에서도 주요한 국가의 문학마다 각각 연대기호표(Period table)를 별도로 전개하고 있다.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8권 제2호)

G. 역사에서도 세계사(909 World history)를 비롯해서 고대사와 각 대륙, 국가 및 지역의 역사(930-990)에 이르기까지 각각 별도의 십진식 시대구분표를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표준세구분표로서의 연대구분표는 그 의미가 거의 상실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표준세구분표에서는 09 이하를 삭제하고 별도로 역사적연대구분표를 합리적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다.

T2. 지역 연대 인물 구분표 (Geographic Areas, Historical Periods, Persons)

이 보조표는 성격이 각각 다른 3가지 분야를 하나의 체계로 전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 그리하여 이것은 3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먼저 지역구분표(Geographic Areas)는 약 400페이지에 걸쳐서 전개된 가장 방대한 보조표인데 전반적으로 분류번호의 자리수가 균등하게 전개되지 못했다. 우선 국가의 면적이 거의 대등한 중국과 미국을 비교해 보면, 중국은 전체적인 지역을 47개 항목으로 구분한 반면 미국은 4058개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므로 미국은 중국에 비하여 85배 이상의 항목을 차지한다. 이것은 또한 전체 항목수의 약 절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역구분번호의 자리수가 반수 이상이 6자리수를 차지하고 가장 많은 것은 7자리(Texas의 Dallas) (-7642812)까지 차지한다. 아마도 이러한 번호는 실제로 사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다. 만약 지역번호를 반드시 추가해야 한다면 그보다 광역의 상위 지역번호를 적용해도 무방할 것이므로 이것은 필요이상으로 세분 전개한 것이다. 그리고 가령 기본분류표의 분류번호가 3자리수인 경우라면 보조표의 번호가 2배 이상이나 되므로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구분표는 미국이나 영국처럼 필요이상으로 세구분된 나라는 합리적으로 축약해서 최소한 4자리 수 이하로 균등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둘째로 이상에서 설명한 표준세구분표 -0901-0905에 연대구분표(Historical period)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위에서 이미 논급된 바와 같다.

셋째로 -2의 인물(Persons)은 지역구분이나 시대구분과 함께 하나의 체계 안에서 다룬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인물(Persons)은 세계인명사전이나 국가별 인명록 등 또는 여러 주제 분야에 걸친 인명록은 총류(Generalities) 중의 적절한 자리에 배정하고, 특정한 주제 분야의 인명록은 각각의 해당분야별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T3. 개인저자에 의한 혹은 개인저자에 관한 저작을 위한 세구분표 (Subdivisions for Works by or about Individual Authors)

이 세구분표는 A, B, C로 나누어져 있는데 A는 개인저자에 의한 저작과 개인저자에 관한 저작을 세구분하는 것으로 비교적 단순하여 분류번호도 모두 두 자리 수 미만이므로 아무런 무리가 없다.

한편 B는 이것도 보조표인데 이 보조표내에 -080 001 -080 99에서 표준세구분을 적용해야 하고, -090 009에서는 역사적 및 지역적 취급(Historical and geographic treatment)을 해야 하고, -090 009 3 -090 009 9에서는 지역구분을 해야 하고, 또한 -1-8 문학의 각 형식(Specific forms)에서는 문학의 각 장르마다 세구분과 시대구분을 해야 하므로 대단히 복잡할 뿐만 아니라 분류번호의 자리수가 동양권이나 아프리카나 기타제국의 문학은 분류번호의 자리수가 16자리이상으로 길어진다. 그러나 이것은 계층적 구조에 따른 십진식분류법을 사용하는 한 해결될 수가 없고 다만 백진식(두자리수) 분류법을 적용한다면 해결될 것이다.

T3C의 경우는 분류항목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분류번호의 자리 수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T4. 개별언어와 어족의 세구분표 (Subdivisions of Individual Languages and Language Families)

T4의 경우는 분류항목수가 59개 항목에 지나지 않으므로 비교적 단순하다. 그러나 계층구조에 따라 십진식으로 전개했기 때문에 분류번호 자리수가 가장 긴 것은 6자리(-864 024)수나 된다. 그러나 만약 처음부터 두 자리 수로 전개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T5. 민족 및 국가군 (Ethnic and National Groups)

T5 민족 및 국가군의 전체적인 항목수가 209개 항목인데 미국과 영국을 비롯해서 서구제국을 위주로 하여 십진식으로 전개함으로써 뒤 부분으로 갈수록 분류번호의 자리수가 길어져서 가장 긴 것은 6자리나(-959 191 Lao) 된다. 그러나 민족과 국가군은 구지 계층적 구조에 따라 십진식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으므로 처음부터 3자리수로 전개한다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T6. 언어구분(Languages)

언어구분표는 전체 항목수가 490항목이다. 이 언어도 십진식으로 전개하여 가장 짧은 것은 한 자리수이고, 다음은 두 자리와 세 자리 수, 그리고 가장 긴 것은 7자리 수나 된다. 그러나 490개의 항목을 001부터 490까지 세 자리수로 전개한다면 일률적으로 한번에 전개할 수 있다. 더구나 언어구분은 구지 계층적 구분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계층적 구분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활자의 크기나 명조체나 고딕(Gothic)체 등으로 구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끝으로 기본적인 분류표 중에서 분류번호의 자리수가 많은 몇 가지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10.737 206 9 Physician assistants
620.189 602 87 Testing and measurement
629.133 340 423 Commercial airplanes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본적인 분류번호가 10자리 수 이상인 것도 상당히 많은데 만약 이러한 분류번호에 -6자리 수 이상의 보조표의 분류번호가 추가된다면 이러한 번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5. 결 론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T1. 표준세구분표의 앞부분에 있는 우선순위표(table of preference)는 분류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표준세구분표는 각각의 항목이 십진식 계층구조에 따라 전개 되어 있어서 세구분번호가 보통 3자리 수 이상이고 6자리 수나 되는 것이 15개나 있다. 그러므로 전반적인 분류번호의 자리수가 많아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둘째로 표준세구분표에는 연대구분표(Historical periods)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연대구분표가 무원칙하고 산만하게 전개되었고, 따라서 각각의 분야마다 부분적으로 별도의 연대구분표를 작성했기 때문에 전혀 일정한 체계가 서지 않는다. 그러므로 현재 표준세구분표에 포함된 역사적연대구분표를 삭제하고 여러 주제 분야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역사적연대구분표를 새로 편성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앞으로 역사가 더 진전될수록 많은 분야에서 과거사를 다룬 문헌이 출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뿐만 아니라 장내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별도의 연대구분표를 작성하여 모든 분야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따라서 이상에서 제시된 문제들을 해결하자면 우선 기본적인 분류번호의 자리수가 필요이상으로 긴 것은 통제해서 간결하게 하고, 특히 자리수가 많은 보조표 번호의 자리수를 통제하여 가능한 균등한 자리수를 가지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제는 오직 십진식 분류법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분류해야 할 대상에 따라 십진식이나 백진식(두자리수)이나 천진식(세자리수)의 전개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